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대책을!

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1등... 계열사까지 합치면 60% 육박 조배숙 의원 "사업조정제도 적극 운영하여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소상공인의 사업조정 신청의 60%가 이마트 계열 사업장(노브랜드, 에브리데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산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8) SSM 사업조정 신청은 총 176건, 그 중 이마트 노브랜드(PB상품매장)가 71건으로 40%가량을 차지했다. 기존의 이마트 에브리데이 32건까지 합치면 이마트 계열 사업장의 사업조정 건수는 총 103건으로 60%에 육박한다.

사업조정제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중인 분경조정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치단체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건수는 총 264건으로, 이중 70%에 달하는 201건이 자율합의로 처리되었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내려지는 조정권고 처리건수는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조정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지적이 입증된 셈이다.

조배숙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조정제도를 운영하여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제67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8일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을 비롯한 재향군인회 임직원 및 회원, 보훈단체 회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고래면역에서 열렸다.

지혜와 역량 발휘해 나라사랑 '앞장'

제67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열려... 안보의식 확립

제67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8일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을 비롯한 재향군인회 임직원 및 회원, 보훈단체 회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고래면역에서 열렸다. 재향군인회 군산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기념행사는 제67주년 기

념일을 경축하고 향군의 결속과 자유행화 수호체제 유지 등 안보의식 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나기학 의원은 "1952년 참전되어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발전과 공익에 기여해 온 향군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

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후손들에게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향군인의 날은 매년 10월 8일 재향군인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 및 향토방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고민형 기자

文 대통령, '역동적 경제' 강조... 민간 활력 높여 돌파구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역동적 경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장 친화적 행보에 무게를 실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역동성의 핵심은 중소기업, 청년과 같은 시장의 약자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혁신 경제'와 '공정 경제'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

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탄력근로제 입법 등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데이터법 등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

민주 정읍고창지역위, '정읍시 상동' 민생탐방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 위원장은 지난 7일 정읍시 상동지역 14개소 경로당을 방문하고 지역주민 사업과 애로사항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경청했다.

이번 탐방행사는 기사재 시의원, 황대중 정읍시 노인위원장, 김현숙 주민자치강화특별위원장, 서항경 일본경제협력대책특별위원장, 송기선 조직

국장, 김승철 대외협력국장, 염영선 상동 당원협의회장, 백낙중 상동협의회 부회장, 장현아 상동협의회 총무가 동행하여 민원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고창군 대산면과 성송면, 9월 24일 정읍시 북면과 수성동, 9월 27일 고창군 상하면, 10월 1일 정읍시 신내면과 연지동, 10월 2일 고

창읍, 10월 7일 정읍시 상동을 민생탐방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급변 민생탐방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발전방안 마련에 반영할 예정이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및 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 30일 '정읍시와 당정 간담회'에서 정읍시는 민생탐방에서 제기된 민원과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협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사상 최저 전망... D의 공포 현실화 되나

디플레이션 우려 높아져... 1965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 유성엽 의원, "현재 핵심은 물가 하락이 아닌 성장 둔화"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

표)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에 의하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를 하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7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7%로 예상했으나, 금년 여름철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예상보다 낮고 국제유가도 예상보다 하락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당초 예상치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1965년 소비자물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 이후, 1999년 외환위기 당시 0.8%, 2005년에 0.7%가 가장 낮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은의 전망대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이 0.7% 밑으로 떨어질 경우, 역대 사상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8월과 9월 사상 최초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함에 이어 디플레이션 우려, 일명 'D'의 공포에 힘을 보탬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은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근원물가 상승과 2%대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동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 물가 상승률은 1.2% 대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하며, 이러한 낮은 물가 상승률은 외부 공급 과잉에 의한 일

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유성엽 의원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문제의 핵심은 물가의 하락보다 성장률 둔화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안이한 해석을 질타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호승 청와대 경제 수석은 지난 9월 근원물가가 0.6% 상승했다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부터 0%대를 유지해 왔고 지난달 0.6% 상승률은 99년 9월 0.3% 이후 최저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지금이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단언하기엔 어렵지만, 문제의 핵심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하며, "성장이 뒷받침된다면 투자와 소비의 증가로 디플레이션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므로, 정부는 반토막난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성장정책의 재정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대한민국 종자생명산업 메카, 김제

2019 KOREA SEED EXPO 2019

2019 10.16 WED ~ 10.18 FRI(3일간)

김제시 백산면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 (백산면 씨앗길 232)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
주관 FACT 농업기술실용화재단